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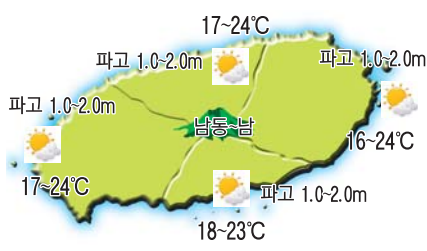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5일 수요일 음 4월 11일 (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8°C, 낮 최고기온은 23-24°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오전, 강수 확률, 오후. Includes percentages for rain and cloud cover.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해돋이 05:34, 해질 19:27, 달뜨기 15:33, 달지기 03:23, 안개 08:03, 안개 01:51, 안개 20:37, 안개 14:36.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내일, 구름 많음, 17/25°C, 모레, 맑음, 18/25°C.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인니 남성, 비행기 랜딩기어에 숨어 밀항 시도

“항공권 살 돈 없어서”

비행기 랜딩기어(이착륙장치) 수납 공간에 숨어 밀항을 하려던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페낭 국제공항 전경.

14일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말레이시아 페낭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9세 남성이 화물기 랜딩기어 수납 공간에 숨어있다가 정비 요원에게 발견됐다.

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고도에서 랜딩기어 내부의 온도는 영하 4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데다 산소 농도도 지상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 까닭에 과거 랜딩기어에 숨어 밀항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으로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링깃(28만5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는 공항 보안 팀에게 붙들려 곧장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인근 가공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확인됐다”면서 “고향인 인도네시아 북(北)수마트라주 메단으로 돌아가려는 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모자라자 밀항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선 이 남성이 오히려 공항 관계자들에게 적발된 덕분에 목숨을 면할 수 있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발행인·인쇄·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인터넷 서비스, 광고접수, 기사제보, 1989년 4월 22일 창간.

건강&생활



강 지 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남역 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와 살해 사건을 접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는 강제 입원치료를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심지어는 자유가 치료다 정신병원을 폐쇄하라는 요구까지 뜨거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위한 정신건강시스템 구축

환정을 흔히 경험한다. 환상속의 세계, 망상속의 세계를 실재같이 경험하다 보니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고, 병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니 병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치료약이 개발되고 약물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작동 메커니즘도 상당 부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뇌기능의 문제가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각종 정신치료, 재활치료, 인지치료, 사회복귀요법 등도 점점 정교하고 세련되게 발전해왔으며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개선된 약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수의 조현병은 성공적으로 치료된다. 하지만 문제는 잘 치료되지 않거나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여 만성화되는 중증 환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첫번째는 취약한 정신의료체계의 재정비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정신장애

역시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효과가 좋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병이 발생한 후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긴 것은 사회적 인식과 편견의 산물로 보인다. 적절한 치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정신센터-경찰-119 간에 긴밀한 공조가 되는 정신응급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응급병상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하여 인권이 보장되고 치료 개방적인 입원치료 환경이 요구된다. 다학제적인 최선의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만성화와 재입원을 막을 수 있다. 퇴원 후 낮병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복귀 전략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기반이 더 촘촘히 확충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의 지역사회 중추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와 중증관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정신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정신재활시설을 고르게 확충하고 이용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세번째는 당사자 및 가족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투병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도 소진되기 쉽다.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회복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동료지원, 질자보조사업, 당사자 및 가족 참여의 확대도 필요하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 정신보건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자, 법과 조례를 통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열린마당

‘산악인 오희준’ 12주기 추모제 즈음하여



오 창 악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자치위원장

몇 년 전 모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취미는 등산이라고 한다. 이 발표 내용만으로 비추어 보아도 이제는 등산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 잡은 것 같다. 필자는 희준이와 영천산악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자긍심을 갖고 세계적인 산악인 오희준에 대해 12년 전 기억을 되살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8000m 이상 히말라야 10좌 이상 등정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의미 있는 기록으로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큰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벤트이다. 오희준 산악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히말라야 산맥 8000m 이상 정상 히

제주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3가지 약속



고 미 령 제주시 삼도1동행정복지센터

제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의 시작은 기초질서 지키기 약속 이행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나 시책을 시행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제도가 정착되는 것 같다. 의식의 변화는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삶이 질이 나아지면서 그에 따른 쓰레기와 주차문제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항상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 제주시의 화두 기초질서 지키기 본격적인 활동으로 연일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27일과 4월 15일 2회에 걸친 도로위 불법 적치물 활동으로 주춧돌 이면도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을 돌아보면 아직도 시

민 의식이 결여 됐음을 실감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내 집앞은 당연히 나에게 우선해야 된다는 의식이 불법 적치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는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기초질서지킴이 운동 생활화로 개인의 이기주의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주도형 의식변화 운동이 정착돼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제주의 환경을 숨쉬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와 대중교통 이용실천으로 탄소가스를 줄여 미세먼지의 급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도로위 불법 적치물 없애기에 동참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3가지 약속을 서로 이행하여 후세에 저랄스럽게 보존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제주 만들기 적극 참여하자.

감귤 신상품 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천혜향(무독), 한리봉·황금향·레몬, 아مان스·맹유자.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 영굴, 한리봉, 히로시마7호,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유라실생 1년생, 황금향 3년생, 유라조생(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궁천(궁천변이지) 1,2,5년생, 일남희(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한라봉 6년생, 하례조생 1년생, 자갈(돌맹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석파농산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064.742.6234, 010.7599.6234.